

특립



신문

대삼권 출세 무광 년이 월일 일사 요화 장급 돈

건양 원년 스월 철일
농상 공부 인가

본설

○ 지나간 십이월 삼십 일일 오후 세시에 정동 새 레미당에서 청년회 회원들이 모여 회장 노병선씨가 기회 학교 남녀를 모호 학문으로 교혹 하며 동등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 다는 문제로 남녀 간에 좌우 편에서 강론을 하는 데 자미 잇고 긴요한 말이 만히 잇더라 의스 제손씨가 우의로 연설하기를 하는 남씨서 사름을 성심이 무론 남녀 하고 이 목구비와 심의 성정은 다 호마지며 만물의 가온디에 데일 총명하고 신령 할지라 동양 풍속이 었지 하여 사나히 논기와 집과 다다 하고 녀편네는 초가 집과 다다 하여 남녀 간에 갑이 높고 나진 줄노 분별을 하는 지 극히 개탄을 일이라 대범 학문이라 하는 것은 사름이 어렸실 때에 넓히 비화서 장성 후 후에 초초 실사를 할야 첫저 몸을 닦고 집을

가작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연하를 평등케 하고는 바인직 었지 홀노 사나히 문학을 비호하며 권으로 말 할자라도 남녀가 다 하고 인품이라 었지 사나히든 사름의 권을 가지고 녀편네는 사름의 권을 가지지 못 할리요 사름들이 아비논 술나무에 비하고 었이든 텅텅이 년출에 비 하는 것은 실노 을치 못하 의론이라 대개 녀편네의 직무는 세상에 나서 사나히를 길으치 라는 것이라 녀편네가 학문이 잇거드며 지식을 처음에 비 속에 포티 고엿실 때 브터 아홉 들을 잘 보호 하여 해산 후로 초초 기르면서 더음고 침고 주리고 비부르고 가렵고 압흔것을 때때로 잘 슬피 여 묘리 잇게 길너 내여 밤노 업시 인도 하는 말이 남과 싸호지 말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독실히 할라 효 데 총신으로 형제를 잘 하여 세계에 명예를 크게 못하 내라 하며 남의 고모나 누이가 그 죽하와 그 아우를 대 하여 길으치며 이호 하는 범절은 너나 업시 다 아는 바이요 안히가 그 남편을 대 하여 모음 쓰는 것을 말 할진디 그 남편의 일성 신체를 못하 정렬호 모음으로 목숨을 이져 버리고 섬기며 가산을 실심으로 도라 보아 홀후호 탄식이 업게 하고 남편이 후박찌 나가 술을 파히 먹고 남의게 실슈 할가 잡기를 하여 가피 신앙 할가 후혈기 지 용으로 무리 하게 남과 싸화 명예가 손히 할가 작금만지 하며 남편을 충성으로 섬기라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라 형대를 우의로 대접하라 일가 간에 화목 잇게 할라 친구간 데로 녀이라 하는 모든 권면 하는 말이 다 남편의 교사로 고문관이라 세상에 사

나히가 업지 못 할 것이로되 또한 녀편네가 업섯이면 군신부조 형 데 조질 친척 친구가 어디서 성것서 리요 녀편네는 어려서 조기의 천정 부모를 섬기고 형 데 자미를 극진히 보호 하는 다 가 혼인 후 뒤에는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남편을 열심으로 도으며 지식을 성심으로 길너 길으치고 남편을 위하여 목숨과 몸을 위하지 아니 하니 그 뜻과 그의 리가 었더케 높고 몸으로 사나히는 다만 조기의 혼 몸동이 문성각 하고 녀편네를 압제문 하며 더욱 높고 도 장 속에 가두듯기 갑히 감초아 두고 학문도 비호지 못 하게 하며 잘못 하는 일이 업것마는 얼는 하면 종역으로 쓰리며 호령질 하여 하등 인물노 대접 하니 가탄 가탄이로다 남녀 간에 그 모음 갖는 것을 말 할진디 가량 열 사나히면 조기 녀편네 박대 하고 다른 녀편네의게 음행 하는 것이 아홉 즙은 되지요 가량 열 녀편네면 조기 남편을 박대 하고 다른 남편의게 음행 하는 것이 불과 하나 박찌 아니 될터이 라 그러 호고로 하는 남씨서 녀편네를 더 생각 할지는 것이 라 오날날 녀편네도 사나히와 처치 학문으로 교혹 하고 녀편네도 사나히와 처치 동등권을 주지는 문제가 오허려 크게 못 그러움이라 구라파 각국에서 남 녀를 못 하호 학문으로 교혹 식히고 남 녀를 동등 권을 준 것은 임의 몇 백년 전에 자당호 일인 고로 국부 민강 하여 복음이 장원 호지라 대한 인민도 남 녀를 못 하호 학문으로 교혹 하고 동등권을 주어 전국이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이 미우 못 당 한다고 할 데라 의관 을 처호씨는 좌의로 연설 할기를